

Style

조선일보

APRIL 2021
vol.220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loropiana.com



SOMEWHERE IN LORO PIANA





10



13

조선일보
Style
APRIL 2021
K4200

Van Cleef & Arpels

반클리프 아펠의 꽃들은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컬러 스톤과 매치해 입체적인 형태를 구현하는 등 끊임없이 변화하며 매혹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그중 프리플 컬렉션은 신들바람에 춤추는 꽃처럼 입체적이고 생생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표지의 로즈 골드 프리플 비트 원 더 핑거 링은 2개의 반짝이는 화관을 통해 연인이 주고받는 사랑의 속삭임을 표현했다. 2천9백만원대, 문의 1668-1906



0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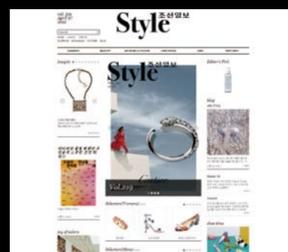
- 10 **A STROLL IN GWANGJU** 아시안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축제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19 여파로 두 차례나 행사를 연기한 끝에 지난 4월 1일 드디어 막을 올렸다. 국가별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먼저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 무대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도시 곳곳의 전시장에서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이라는 대주제로 39일간의 여정을 펼치고 있다(5월 9일까지). 광주비엔날레는 25년이 넘도록 대부분 짝수 해 가을에 치러졌는데, 13회를 맞이한 올해는 홀수 해에 꾸러지는 봄의 제전이라 더 기억에 남을 듯하다.
- 13 **THE BEAUTIFUL ESCAPE** 서울은 미세 먼지로 빨간 불이 켜졌던 지난 3월의 어느 날, 오랜만에 제주도를 방문했다. 녹음이 짙은 전원 풍경과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 따사로운 햇빛이 공존하는 국내 최고의 휴양지 제주도. 사텔이 이곳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 14 **EXTREMELY DYNAMIC** 물속, 땅, 하늘 위 어디에서나 어울리는, 액티브를 위해 태어난 워치 7.
- 15 **GREEN GARDEN** 생동하는 봄처럼 낙천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그린 주얼리 컬렉션.
- 16 **FRIENDS** 이번 시즌, 남자들의 옷 입기는 즐거운 게임이다. 흥미롭고, 모험적이고, 규칙 따위에는 얽매이지 않는.
- 24 **NEW CURVE** 자유로운 핑크 정신과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일렉산더 맥퀸의 뉴 백, 커브.
- 26 **THE DAZZLER** 주얼리 메종에서 만드는 백에는 남다른 미학이 있다.
- 27 **LA BELLA VACANZA** 자중해로 떠나는 살렘을 천연 라피아와 최상의 악어가죽으로 표현한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카의 비잔스 컬렉션.
- 28 **ABOUT A CASE** 활동적인 비즈니스맨을 위한 어반 리더 컬렉션.
- 29 **서울에서 즐기는 독일 아트** 독일의 문화와 예술에 뿌리를 둔 MCM의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MCM 하우스에서 4월 3일부터 한 달간 코닉 갤러리 대표 작가 30명을 포함해 주목할 만한 신인 작가들의 전시를 오픈한다.
- 30 **STAY HEALTHY** 건강과 면역력 관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요즘, 면역력으로 직결되는 단백질 보충에 뼈 건강, 장 환경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일동 후디스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 소개한다.
- 32 **SWEET SPRING** 잠시라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순간에 민망하지 않도록, 밝고 행복한 발색은 물론이고 촉촉한 입술 케어까지 가능한 스프링 립 셀렉션.
- 33 **SPRING IN THE AIR** 코끝을 자극하는 싱그러움 봄 향기.
- 34 **EDITOR'S PICK** 봄철 피부 고민을 해결해줄 스마트 뷰티템 13.

Style 조선일보

Issue.220 April 2021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찾아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셋째, 넷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드립니다. 허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JAEGER-LECOULTRE

REVERSO DUETTO

에거 르쿨트르 부티크
 갤러리아 EAST - 롯데 에비뉴엘 - 롯데 월드타워 - 롯데 인천
 신세계 강남 - 신세계 대구 - 현대 무역센터 - 현대 본점 - 더 현대 서울 - 현대 판교



A SPRING BREEZE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는 신들바람에
 춤추는 꽃잎을 서정적인 감성으로 풀어내는 **반들리프 이젤**.
 로즈 골드와 다이아몬드, 두 가지 소재로 인체적이고
 섬세한 꽃잎을 표현했다. 프리블 브레이슬릿
 미니사이즈 5백30만원, 문의 1668-1906

PROTECT YOUR SKIN

포근한 날씨에 조심스럽지만 야외 활동 시간이 늘어났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피부 톤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는 스킨 티트 4, (위부터) **톰 포드 페이스 프로텍트 SPF 50+/PA+++** 가법계 흡수되는 제형으로 피부를 자연스럽게 매끄럽고 매끄럽게 정돈해준다. 스킨케어 선행을 함유하고 자외선차폐력 향상효과와 피부 진정 효과를 선사한다. 30ml 8만5천원, 문의 02-6971-3211 **라메르 레디언트 스킨 티트 SPF 30 #02**에어 공기처럼 가벼운 텍스처가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주어 우아하고 매끄러운 광채를 얻을 수 있다. 잔주름과 모공을 가법계 매워주고, 피부 톤을 균일하게 연출한다. 문의 02-6971-3215 **샤넬 르 블랑 브라이트닝 메이크업 베이스 SPF 40/PA+++ #코제** 라이트-리플렉팅 컴플렉스와 비타민 B 유도체가 피부에 환한 빛을 부여하고, 매화꽃 오일을 함유해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린다. 30ml 7만4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사슬리 휘트 이드라 펌 SPF 15** 피부 톤 보정과 동시에 스킨케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제품. 골드 시과 추출물이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 백합 추출물이 수분을 공급한다. 40ml 12만5천원, 문의 080-549-0216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주이**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THE NEW NOSTALG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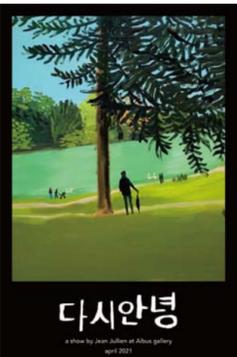
메가트렌드로 급부상한 친환경 소재 사용에 토즈도 동참했다. 라피아 소재를 적용한 오보에 백이 그 주인공. 장식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곡선 실루엣과 브라운 송이자가족 트라밍으로 포인트를 살렸다. 가로세로 13.2X14.4cm 크기의 오버사이즈 백이지만 가볍게 들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다. 클래식한 서머 슬렉스오도, 시릴스러운 플로럴 드레스오도 잘 어울리는 이 미법 같은 아이템으로 휴양지 분위기를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
 1백70만원대, 문의 02-3438-6008



PICK ME UP

미감까지 충족시켜주는 패션 하이테크 액세서리, (위부터) 오렌지 에-펠드 메탈 소재 스마트 워치 케이스 85만원 **밴디**, 문의 02-514-0652, 지퍼 클로저로 여닫을 수 있으며, 조절 가능한 체인 스트랩을 장착했다. 아이크-한 에-펠 메탈 트라이앵글 로고를 장식한 시피어는 가죽 무늬 아이본 케이스 75만원 **프리다**, 문의 02-3218-5331, 카멜리아이비클로 장식한 아이본 체인 케이스 가격 미정 **사벨**, 문의 080-200-2700, chanel.com,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주이**

EXHIBITION



전환후 크리에이터로 활약 중인 프랑스 출신 장 줄리앙(Jean-Julien)의 개인전이 지난 1일부터 서울 한남동 일루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1983년생으로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일하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업으로 꾸준히 지평을 넓혀온 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회화전이다. 전시 제목은 〈다시안녕 (Hello Again)〉. 서핑, 산책, 바다 등 소소한 일상에서 영감을 주는 소재들로 수놓은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30여 점을 소개한다. 전시 담당자는 "캔버스 속 오브제와 배경은 작가의 일상적 경험을 낱알로 풀어낸 시리얼이자 시간이 기록된 회화적 사인들"이라며 "자연해 팬데믹을 거치며 바뀐 공간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제작되었고, 자연스럽게 시각적 다양성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평은해서 더 눈부시게 빛나는 일상을 담은 그림을 응시해보려면 절로 행복감이 전이되는 듯하다. 5월 30일까지, 네이버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BRUNELLO CUCINELLI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친문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구신세계점, 센텀시티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판교점, 대구점, 부산점, 갤러리아백화점 EAST / 롯데백화점 본점 에미뉴엘, 부산본점 / AK플라자 본점

the Faubourg Odyssey

핑크 컬러 카프 레터 벨트 백, 18X11.5cm, 1백30만원대 토즈.

다들 좋아하는 VU 비버지 신발은 59만원 대.

송아지 가죽 소재 세들 미니 백, 21X16cm, 가격 미정 대.

실드 슈슈 레아르드 31만원대 에센스.

루이 폰 홀더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모노그램 패턴 소츠 가격 미정 펜디.

모노그램 노트 페이스 액세서리 11만5천원 MCM.

고트 스킨 패브릭 샌들 가격 미정 샤넬.

와이트 루드 베블리 골드 비즈 링 1백만원대 반올림아일랜드.

새뮤얼라트 조시핀 에티어 아미이

칼리버-1904 CH MC로 구동하는 산토스 드 카르띠에 크로노그래프 워치 1천1백만원대 카르띠에.

카프 레더를 닷된 코트 백백 1백만원대 펜디.

화이트 라이닝사니슈즈 가격 미정 프라다.

자유로운 지중해의 감성을 담은 아티잔 블루, 125ml, 11만5천원 쉐넬비스트.

레오파트 후디 재킷 5백40만원대 로로피아나.

토즈 02-3438-6002
 다울 02-3480-0104
 에르메스 02-544-7722
 펜디 02-514-0652
 카르띠에 1566-7277
 MCM 02-540-1404
 루이 비통 02-3432-1854
 반올림아일랜드 1669-1906
 로로피아나 02-546-0615
 프라다 02-3218-5331
 쉐넬비스트 080-3635-5454
 샤넬 080-200-2700, chanel.com

Selection

가벼운 산책과 라이딩을 위한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park kun woo**





2021 광주비엔날레가 선사하는 미술 산책

a Stroll in Gwangju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축제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19 여파로 두 차례나 행사를 연기한 끝에 지난 4월 1일 드디어 막을 올렸다. 국가별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먼저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 무대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도시 곳곳의 전시장에서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이라는 주제로 39일간의 여정을 펼치고 있다(5월 9일까지). 광주비엔날레는 25년이 넘도록 대부분 짝수 해 가을에 치러졌는데, 13회를 맞이한 올해는 홀수 해에 꾸러지는 '봄의 제전'이라 더 기억에 남을 듯하다.

#도시 곳곳을 '아트'로 다채롭게 수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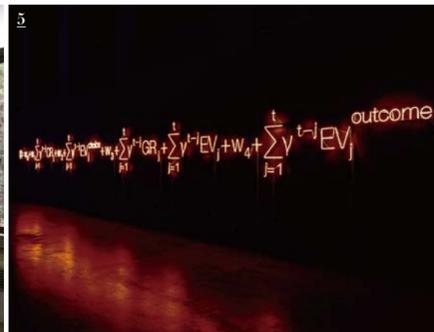
고별 무대가 될 (구)국군광주병원의 친분한 봄

1995년 첫 단추를 꿰 때만 해도 의심쩍은 눈빛이 많았지만 광주비엔날레는 어느새 아시아 지역을 상징하는 현대미술 축제이자 담론의 장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예향의 자부심을 살려 역사의 깊은 상처를 문화 예술로 치유하고 승화한다'는 취지를 꾸준히 살리다 보니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도 관련 인프라와 콘텐츠가 차츰 쌓여가는 모양새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내건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확장된 시각과 대안적 지성으로 '연대'와 '치유'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팬데믹으로 얼룩진 우리의 일상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고 반갑게 느껴진다. 69명(팀)의 다국적 작가가 참여하고 40점 정도의 커미션 신작을 포함해 4백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데, 규모는 예년의 절반 수준이나 콘텐츠의 내실이 다양성을 보면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전시 장소의 다채로움도 키기는 듯하다. 호오(好惡)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옛 국군광주병원은 '비엔날레 산책'의 필수 코스가 아닐까 싶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치료소이기도 했던 이 병원 부지는 평소에도 개방되지도 않거나와 올해를 끝으로 전시 무대로는 '작별'을 고해야 하기 때문(국립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깨진 유리창과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병원 건물은 해맑게 핀 개나리 덕분에 훨씬 덜 신산해 보이고, 더 감동적이다. 현재 광주를 기반으로 한 작가 12인이 참여한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전이 진행 중인데, 이 중에도 꽃을 활용한 작품이 있다. 과거 중환자실로 향하던 통로 바닥에 5천 송이의 옥스아이 테이저가 꽃길을 이루고 있고, 이 꽃들 사이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퍼진다. 문선희 작가의 '물고, 물지 못한 이야기-목소리'라는 작품으로 작가가 유년기에 5·18을 맞은 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지금 광주에 사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담아냈다고. 이렇듯 지역 작가들의 역량이 고루 돋보이는 기획전 말고도 이불, 지하루 시오 타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참여한 'GB커미션' 작품도 일부 볼 수 있다.



1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획된 다국적 프로젝트 메이노데이(MayoDay)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광주 7인의 작가 12인이 참여한 주제전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가 열리고 있다. 2 5·18민주화운동 당시 다친 시민들이 치료를 받던 옛 국군광주병원에서 찾아온 봄이 느껴지는 풍경. 3 문선희, 물고, 물지 못한 이야기-목소리(2021). 식물, 시멘트 설치, 7면 크기. 과거 국군광주병원 중환자실로 가던 보행로에 5천 송이 옥스아이 테이저가 꽃길을 이루고 있고, 이 꽃들 사이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퍼진다. 4 옛 국군광주병원에서 광주비엔날레(GB) 커미션 작품을 전시하는 무대 중 하나이다. 왼쪽 작품은 가을과 빛을 활용해 공간을 미로처럼 변형시키는 이불(Lee Bul)의 태양의 도시 연작. 5 올해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열리는 정외 전시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미술 전시 (워크 라이드 오페라).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리암 길릭(Liam Gillick)의 대규모 개인전으로 비엔날레 전시관과 도보 5분 거리의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다(오는 6월 27일까지). 이미 광주시립미술관 제6국립광주박물관 정원에 설치된 참미 예술가 서사리 비쿠냐(Cecilia Vicuña)의 작품 '소리란 꿈꾸는 비: 차학경에 대한 경의(2021)란 작품이다. 차학경은 1982년 비문의 사건으로 요절한 이민 1.5세대 재미 예술가로서 사후에 휘트니 미술관에서 두 차례 회고전이 열린 바 있다. 미술가이자 시인이자 공룡점을 지닌 비쿠냐와 차학경은 각각 칠레와 한국에서 뉴욕으로 이주했고, 시와 즉흥 퍼포먼스를 통해 사면적, 모계 중심적 전통과 연결되고자 했다고. 비쿠냐는 '무(nothingness)'로 돌아간 민 친척처럼 느껴지는 그녀의 음성을 들었다(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면서 음악가 리카르도 갈로(Ricardo Gallo)와 협업해 차학경의 명제(딕테)를 소개했다. 잠시라도 정자에 앉아 그들이 빛어낸 '소리의 만남'에 스며들어 보기를 추천한다. 이 밤에 근처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또 다른 맥락에서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리암 길릭(Liam Gillick)의 전시가 진행 중이다. 일과 삶의 역학 관계를 지적,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영국 작가로 아시아권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이는 대규모 개인전이다.



시를 듣고, 햇살과 비를 맞고... 공감각의 미학

페허나 다름없는 옛 병원에도 봄기운이 흐를진대, 건축물들이 저마다 맴 시를 뽐내는 문화 예술 지구는 두말할 필요 없을 터. 광주비엔날레 주 전시관을 비롯해 여러 미술관이 모여 있는 북구의 미술관 구역에도 봄 내음이 물씬 풍긴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죽음과 사후 세계, 육체의 한계성 등의 개념을 다루는 주제전이 열리고 있는데, 신작 커미션 작품들이 눈에 띈다. 입구에 있는 꽃잎으로 절철된 설치 작품을 지나 본전시관에 들어가면 이번엔 공개된, 테오 에셰투(Theo Eshetu)가 박물관에서 촬영했다는 '유령의 춤을 만날 수 있다. 과거 식민지화된 영토에서 약탈한 유물들이 놓여 있는 박물관에서 반감아 춤사위를 펼치는 두 무용수의 움직임에 절로 눈이 고정된다. 박물관 전시에서 선보이는, 시인들의 사후 삶을 고찰한 갈라 포르라스-킨(Gala Porras-Kim)의 철기시대 인골과 페이퍼 마블링 작품이라든지 여러 해부학 책과 그림, 해몽을 바탕으로 한 역학 당사주 등 이곳의 전시작들은 '박물관'이라는 정서와 잘 어울린다. 그리고 아의 정원으로 발길을 옮기면 자칫 모르고 지나칠 법한 신작 커미션이 있다. 녹색 잔디 위에 평온하게 솟아 있는 정자에 설치된 사운드 시(sound poem)로, '칠레 출신 예술가 세실리아 비쿠냐(Cecilia Vicuña)의 '소리란 꿈꾸는 비: 차학경에 대한 경의(2021)란 작품이다. 차학경은 1982년 비문의 사건으로 요절한 이민 1.5세대 재미 예술가로서 사후에 휘트니 미술관에서 두 차례 회고전이 열린 바 있다. 미술가이자 시인이자 공룡점을 지닌 비쿠냐와 차학경은 각각 칠레와 한국에서 뉴욕으로 이주했고, 시와 즉흥 퍼포먼스를 통해 사면적, 모계 중심적 전통과 연결되고자 했다고. 비쿠냐는 '무(nothingness)'로 돌아간 민 친척처럼 느껴지는 그녀의 음성을 들었다(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면서 음악가 리카르도 갈로(Ricardo Gallo)와 협업해 차학경의 명제(딕테)를 소개했다. 잠시라도 정자에 앉아 그들이 빛어낸 '소리의 만남'에 스며들어 보기를 추천한다. 이 밤에 근처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또 다른 맥락에서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리암 길릭(Liam Gillick)의 전시가 진행 중이다. 일과 삶의 역학 관계를 지적,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영국 작가로 아시아권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이는 대규모 개인전이다.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각양각색의 사머니즘, 결국 '치유'를 위함이다

빛과 색채, 메시지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리암 길릭의 전시가 펼쳐지는 몰입형 공간에서 도보로 5분 정도만 가면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이라 쓰인 큼직한 간판이 걸려 있는 광주비엔날레 메인 전시관이 나온다. 비엔날레 역사상 최초로 무료로 개방한 1전시실을 위시해 모두 5개 전시실이 있는데, 사머니즘과 생태주의, 토착 생활 문화와 제도로 규정할 수 없는 연대 의식, 모계 문화 등 비주류적 유산을 탐색하는 예술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터키 출신 디페네 아야스(Defne Ayas)와 인도 출신 나타샤 잔발라(Natasha Ginwala)가 공동 예술감독을 맡았는데, 이들은 "우리는 내부자와 외부자, 법과 불법, 남성성과 여성성을 철저히 구분 짓는 이분법을 넘어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확장하고 포용적인 실천을 지속해온 예술가, 사상가와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동시대를 둘러싼 비판적 담론을 부각하는 비엔날레다운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인종이든 국적이든 관계없이 대다수가 혼돈에 빠지고 경솔한 모습을 보인 팬데믹을 계기로 전 인류적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작금의 상황에 잘 맞는 주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공격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합과 포용의 정신을 끌어내며 '치유의 연대를 꾀하고자 하는 이번 비엔날레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우월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우리에게 지구인을 어느 정도 보듬어주고 문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포용과 연대를 제안하는 모성의 손길

그리고 중요한 점은 비(非)서구적 시각으로 제3세계의 철학적 방향을 한 데 모아 소개한다고 해도 크게 산만하지 않고, 스타 작가들이 즐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작품이 흥미롭다는 호평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1전 시일부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기운이 감도는 공간이 펼쳐지는데, 돌부치, 민화 등 한국적 사머니즘을 비롯해 무속의 의식 체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작품들이 놓여 있다. 서구형 대형 마트에서 들어온 카트에 부채와 꽃 장식을 붙여 고인을 떠나보내는 '상여'로 탐바꿈시킨 김상돈의 '카트', 그

리고 정중앙에 매달린 붉은색과 노란색 계열의 실로 만든 매듭 조형물도 눈길을 절로 잡아준다. 후자는 소수 유목민인 사미족 출신 핀란드 작가 오우티 피에스키(Outi Pieski)의 커미션 작품 함께 떠오르기(2020)다. 사미족 전통 의상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 아름다운 작품은 여성의 연대를 상징하는데, 공동체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곱씹어보게 만든다. 2전시실로 이어지는 복도에 걸린 '더 배드 피치 걸스' 듀오 역시 선조의 수공예 기술을 되살려 아플리케 장식, 자연 염색, 지수를 사용한 일련의 배너를 제작했고, 3전시실을 수놓은 세실리아 비쿠냐의 패브릭 페인팅 작품(베트남에 대한 경의 시리즈)들도 비슷한 맥락의 울림을 준다. 콜롬비아부터 칠레에 이르는 안데스 철학과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문화를 꾸준히 탐색해온 비쿠냐는 환경,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제기는 물론 여성의 연대를 상기시키는 제의적인 작품도 많이 해왔다. 5전시실은 아예 '행동하는 모계 문화'로 꾸러졌다. 백문이 불여일견!

#갈수록 매력 돋는 ACC 일대와 앙림동

시적 감수성과 울림 있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콘텐츠의 향연

동구에 자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도 시원시원한 건축물이 넘나든 공간감을 선사하는 광주비엔날레의 주요 전시 장소다. 올해에는 국내외 미술 기관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 그리고 GB 커미션 작품의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파빌리온으로 참여한 두 나라 중 스위스는 인근의 은암미술관에서, 대만은 ACC 문화창조원 건물에서 프로젝트를 각각 선보였다. 대만 동시대문화실험장(C-LAB)이 기획한 〈한 쌍의 메아리〉라는 전시로, 비슷한 역사적 질곡을 거친 대만과 한국의 근현대사를 짝어본다는 맥락에서 불인 타이틀이다. 무고한 대만 시민들이 탄압당했던 '백색 테러' 시대의 피해자들이 남긴 유서를 바탕으로 한 설치 작품 '나의 소중한 사랑, 작별의 입맞춤과 안락' (왕딩예)을 비롯해 시적인 감수성이 묻어 있는 수작들이 모여 있다. 장리런, 청유안, 루이란신이 협업해 작업한 FM100.8은 개인적인 '최애' 작품이다. 탁자와 소파, 라디오 등이 구비된 옛 가정집의 거실을 연상시키는 설치 공간에 갑자기 불이 꺼지고 "뻘이~" 하는 경고음과 함께 스크린에서 자막이 흘러나온다. '지금부터는 등화관계 시간이다. 모두 빠짐없이 불을 끄고 창문을 닫아라.' 그리고 풀이 나부끼는 스크린을 통해 잔잔하게 회상의 독백을 시작하는 여성의 목소리. 그녀는 "한때 사랑은 범죄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동안 정말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일까?라고 자조 섞인 문장을 내뱉는다. 마치 서사에 빨려 들어갈 듯 26분이 흘러버린다. 이 밖에 20세기 초 조선 땅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이민자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오늘날의 사회적 논제들과 연결하는 김성환의 싱글 채널 영상 작품 '머리는 머리의 부분'(2021), 북한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참여한 화제가 된 후 추 니엔의 2채널 영상 작품 '49번째 페'(2020)는 ACC 공간에서 선보인 GB커미션 작품들이다. 인간과 환경문제를 다룬 ACC 자체 기획전 〈이퀄리브리엄(Equilibrium)〉도 비엔날레 기간까지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ACC 일대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단란 극장인 광주극장(동구)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비엔날레 전시도 열지만 장소의 미학을 살려 라이브 오케스트라 공연도 시도했다.

골목마다 채워지는 이따기따기 문화 예술의 향기

근사한 맛집과 카페가 많기로 유명한 ACC 일대를 거닐면서 미술 산책을 한다면 행정구역상 남구지만 그다지 멀지 않은 앙림동 일대까지 한데 묶은 노선을 염두에 둘 만하다. 올해 처음 광주비엔날레 전시 공간으로 합류한 앙림동의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은 1904년에 정착한 서양 선교사 사택을 개조해 문화 예술 공간으로 만든 '잇 플레이스.' 작은 공간으로 잘 구획되어 물임도가 높다. 독특한 냄새를 입힌 둥근 현무암을 활용해 4·3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인들의 일기를 읽게 하는 시셀 톨라스(Sissel Tolaas)의 'EQ IQ EQ' 라든지 지하에 시각적 강렬함으로 정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파트리샤 도밍게스(Patricia Domínguez)의 다양한 작품 등 놓치면 아쉬운 콘텐츠로 채워져 있다. 근처에는 지난해 문을 연 미디어 아티스트 이아남 작가의 복합 문화 공간 '이아남스튜디오'를 비롯해 여러 작가의 작업실과 다양한 문화 예술 아지트가 포진했다. 골목마다 '역사와 문화 예술이 숨 쉬는 이 매력적인 동네'에서는 비엔날레 기간에 발맞춰 앙림골목비엔날레 1회가 한창 진행 중이다. 글 **고성연**



1 장리런, 청유안, 루이란신이 함께 만든 FM100.8(2019), 영상 설치,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중 하나로 대만 동시대문화실험장(C-LAB)이 기획한 〈한 쌍의 메아리〉에 선보인 작품. 해외 유수 미술 기관과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2018년 열린 제12회 비엔날레에서 시작했다. 이미지 제공 Taiwan C-LAB 2 김성환, '머리는 머리의 부분'(2021), 이민지 역사를 다루면서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하와이를 연결한 싱글 채널 영상 작품. GB커미션 작품으로 ACC 문화창조원에서 전시 중이다. 3 스위스 비엔날레에 위치한 문화 예술 기관인 콘스트하우스 파스파르트의 광주 은암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스위스 파빌리온 프로젝트 〈얼른 투게더(Along Together)〉. 스위스 안투가 안나 안데레그(Anna Andereggi)이 여성 무용수 3명과 다국적 발을 꾸려 지난 2월 26일 은암미술관에서 세계 초연을 진행했고, 현재는 당시 공연을 기록한 박수환 감독의 공간적 비디오 설치 작품과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Anna Andereggi, Photo by Nicole Pitzer 4 가라빙 필름 컬렉티브(Karrabing Film Collective), '선조들과 함께 나아가기: 인생의 빛'(2020), 유사 깊은 단란 극장인 광주극장에서 전시 중인 5채널 영상 설치 작품. 5 아시아 작가 11인이 참여한 ACC의 기획전 〈이퀄리브리엄〉에서 선보인 김준 작가의 사운드스케이프 작품 '메코사털-도시의 산호, 자연의 산호'(2018). 복합 매체(12채널 사운드, 스피커, 증폭기), 전시는 5월 9일까지. 6 0번 비엔날레에서 처음 전시 무대로 선보인 문화 예술 마을 앙림동의 명소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전시 중인 시셀 톨라스(Sissel Tolaas)의 설치 작품 'EQ IQ EQ'(2019년~). 7 역시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전시 공간에 설치된 파트리샤 도밍게스(Patricia Domínguez)의 어머니 드론(2020).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한 작가의 경험과 이미지 파피에 반대 사육을 감시하는 경찰 문화를 중점해 고집은 작품. 이미지 제공 광주비엔날레 제2, 4~6 Photo by SY Ko



the beautiful escape

서울은 미세 먼지로 빨간 불이 켜졌던 지난 3월의 어느 날, 오랜만에 제주도를 방문했다. 녹음이 짙은 전원 풍경과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 따사로운 햇빛이 공존하는 국내 최고의 휴양지 제주도, 샤넬이 이곳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아스팔트 위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와 하늘을 가리는 높은 빌딩에 익숙한 도시 여성에게 사별은 취향과 욕망 사이 어느 지점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푸른 나무와 바다,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머무는 휴양지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봄바람 살랑이는 3월, 샤넬이 처음으로 제주도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제주의 봄과 여름을 담은 셀렉션

제주 신라호텔 중앙 로비 바로 옆에 위치한 부티크의 포인트는 환하게 빛나는 불투명 화이트 루리에 블랙으로 테두리를 장식한 문. 안으로 들어서면 트위드 벽면과 베이지 컬러 카펫으로 꾸민, 마치 잘 정돈된 파리저엔의 집에 들어선 듯 따뜻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밝고 환한 화이트 공간이 펼쳐진다. 모던하고 현대적인 270m²의 넓은 공간에 광택이 흐르는 금속과 거울 장식으로 악센트를 주어 컬렉션의 유쾌한 컬러가 더욱 돋보이게 했다. 또 고급함과 생동감이라는 대조되는 감성을 채워 넣어 차분하고 여유롭게 쇼핑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팝업 스토어에서는 2021 S/S 컬렉션 중 휴양지에 잘 어울리는 제품을 만날 수 있으며, 5월부터는 여름을 위한 샤넬 2021 코코 비치 컬렉션이 추가될 예정이다. 패션 컬렉션 아티스틱 디렉터 버지니 비아르가 아이코닉한 영화배우 출신 뮤즈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2021 S/S 컬렉션은 샤넬의 상징인 블랙 & 화이트는 물론, 페일 핑크와 형광색 등



화려한 컬러를 함께 사용해 경쾌하다. 커스텀 주얼리로 장식한 트위드 수트, 보디라인을 살짝 드러내는 하이웨이스트 팬츠, 플루이드 튜닉 등의 의상은 가볍고 낭만적이다. 여기에 블루, 코랄, 레드 세브론 디자인의 아이코닉 11.12 핸드백과 브라이트 핑크와 라이트 핑크 컬러의 샤넬 19 백 등 다양한 핸드백과 스즈, 액세서리와 매치하면 완벽한 룩이 완성된다. 매장 안쪽에 마련된 아담한 방에서는 샤넬의 상징인 J12 워치와 화인 주얼리 코코 크리쉬 컬렉션 등도 착용해볼 수 있다.

샤넬의 우아함과 독창성, 현대성을 모두 구현한 이번 팝업 스토어는 제주에서의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선사할 듯. 기간은 6월 20일까지이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픈한다.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에디터 장민호**

1 블랙 & 화이트로 대비를 준 샤넬 팝업 스토어 외관. 2, 3 샤넬 2021 S/S 레디투웨어 룩을 입은 마네킹들. 4 및층 벽 디스플레이 유닛을 설치해 시즌 테마에 맞는 다양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배치했다.



(우부터 순서대로) **종달람 자오스피어 블루** 세계 7대 정상에 도전하는 산악 탐험자들의 정상을 가리는 시계로 12시 방향의 북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6시 방향의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계됐다. 티타늄 소재의 케이스는 직경 42mm이고, 빙하와 얼음을 연상시키는 딥 블루와 화이트 컬러를 매치해 기동성이 좋다. 회전하는 2개의 반구는 월드타임 디스플레이로, 한눈에 전 세계 시각지를 볼 수 있어 해외 산악 탐험에 유용하다. 79991만원. 문의 1670-4810

에거 르클레르 플라티닉스 마라니 메모박스 배터링이든 이리추어든 수중에서 활동 시 정확성과 안정성 모두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다이버들에게 적합한 시계. 최대 수심 300m 방수 및 파워 리저브 기능으로 다이빙 시계의 기준인 COS 6425를 엄격히 지켰으며 수면으로 올라갈 시기를 음향신호로 알려주는 알람 기능까지 갖췄다. 케이스 직경은 42mm, 소재는 스텔이다. 2천4백10만원. 문의 02-6905-3998

로저드비 엑스칼리버 우라칸 피코판테 캄보르거나 스리드라 코르세와의 파트너십으로 개발한 두 번째 독점 칼리버 RD6300으로 구동한다. 12도 기울어진 밸런스 휠과 우라칸 비커 테두리 디자인을 차용한 로터, V10 엔진을 상가시키는 스트로크 디자인 브리지 등이 특징이다. 전 세계 88개 한정 생산한다. 6천9백만원. 문의 02-3213-2244

파라이쿠아노 마라나 피르미테크 스텔보다 60% 가량 가볍고 견고하며 부식에 강한 피르미테크™ 소재로 만든 케이스가 특징. 이 소재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얻은 천연섬유로 소재 과학 분야의 한계에 도전했다는 평을 받는다. 아두운 블루 컬러 그래피티선다 이얼 케이스는 직경 44mm, 시곗바늘, 9시 방향 스물세인트, 3시 방향 날짜 창을 갖추었으며 수심 약 300m 방수와 3일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1천9백만원대. 문의 02-6905-3394

IWC 포르투가저 오토 클럽 크로노그래프 항해용 스포츠 시계로 IWC 자체 제작 89361 칼리버로 구동하며 68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시·분·초 단위의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추고, 실버 도금 다이얼과 블루 핸즈, 그리고 폴라리스 새틴 마감이 돋보이는 스틸 브레이슬릿을 조화롭게 매치했다. 케이스 직경은 44mm, 수심 약 60m 방수 가능하다. 1천8백50만원. 문의 02-3440-5876

블린람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야넥 그랜드 블랙, 메트로, 그레이, 블루 컬러로 선보였던 피프티 퍼센트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야넥이 다이얼부터 배럴까지 그린 컬러를 입었다. 오랜 기간 연구한 끝에 탄생한, 빛의 각도에 따라 변하고 때로는 메달릭한 컬러를 발산하는 생생한 그린 컬러다. F385 칼리버는 진동수 51.5로 박동하며 0.1초 단위까지 측정 가능하다. 케이스 직경은 43.6mm, 니트 스트랩 또는 캔버스 스트랩을 매치할 수 있다. 2천만원대. 문의 02-6905-3367

오메가 시미스터 다이버 300M 넥톤 에디션 해안 보호에 앞장서는 비영리 연구 재단 넥톤과 파트너십을 맺고 출시한 모델. 레이저 가공 처리한 블랙 세라믹 다이얼에 매트한 물결 패턴을 장식했고 케이스 백에는 연구 재단을 상징하는 잠수정 메달리온을 새겼다. 오메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안의 30%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로 바다를 지키고 있는 넥톤의 비전을 존중하며 목표가 실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79990만원. 문의 02-3467-8632 에디터 정미윤

extremely dynamic

물속, 땅, 하늘 위 어디에서나 어울리는, 액티브를 위해 태어난 워치 7.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green garden

생동하는 봄처럼 낙천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그린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불가리 세리펜터 세두리 네크리스** 풍요, 지혜, 불멸과 장수를 상징하는 뱀에게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 육각형 패턴으로 뱀의 비늘을 표현한 구조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뱀의 눈을 장식한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어 매력적인 빛을 그려낸다. 4천9백만원대. 02-2056-0170 **빈클리프 이얼 매지 일함브러 이어링**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 모티브의 경쾌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드롭 이어링. 옐로 골드 바탕에 말라카이트를 세팅해 우아한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1천2백만원대. 문의 1668-1906 **부쉐론 세븐 보렐 말라카이트 워치** L 링 드롭 모티브로 뱀의 머리를, 골드 비즈 기점으로 뱀의 비늘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주얼리 피스. 골드 비즈 장식 밴드가 11.45캐럿 말라카이트를 농경하게 감싸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1천만원대. 문의 02-6905-3322 **피아제 포저서 오픈 방글 브레이슬릿** 카보숑 컷 말라카이트를 세팅한 반구형 디자인이 유쾌한 매력을 뽐낸다. 젠스톤 주변에는 7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빛과 풍위를 더했다. 2천2백만원대. 문의 02-3479-1902 **타사키 루미노 페리도트 밴드** 네크리스 군다다기 없이 간결한 화이트 골드 프롱에 4.97캐럿 페리도트를 얹었다. 콘크리트 것으로 어떤 각도에서든 영롱한 페리도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5백만원대. 문의 02-3461-5558 **다이아나 벨레포크 링**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대체로운 색감과 개성, 혁신으로 가득했던 파리의 황금시대를 기념하는 컬렉션. 화이트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의 에메랄드를 교차로 장배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79999만원. 문의 02-3213-2141 **소피드 하이퍼울리 컬렉션 에메랄드 이어링** 우아하게 흐드러지는 드롭 모티브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주얼리 피스. 패어 컷 에메랄드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했다. 1944천5백16만원. 문의 02-6905-3390 에디터 **이우미**

Friends

이번 시즌, 남자들의 옷 입기는 즐거운 게임이다.
흥미롭고, 모험적이고, 규칙 따위에는 얽매이지 않는.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왼쪽부터 (순차) 옐로 컬러 자물쇠 장식 재킷 3백72만원, 핑크 컬러 크랙클 패인팅 지퍼 진 1백38만원, 블랙 컬러 마시멜로 라버 샌들 47만5천원, 레드 컬러 미니 안티고나 버티컬 백 1백98만원 모두 **자함시**.
(지함) 올 및 모헤어 소재의 블랙 재킷 3백23만원, 지퍼 장식 포플린 셔츠 80만원, 블랙 올 팬츠 1백52만원, 블랙 컬러 레더스물 2인1백 1백98만원, 구두 가격 미정 모두 **자함시**.
(강연) 자물쇠 장식 코튼 캐버린 코트 3백39만원, 화이트 컬러 크랙클 패인팅 지퍼 진 1백38만원, 베이지 컬러 마시멜로 라버 샌들 47만5천원, 베이지 컬러 미니 안티고나 버티컬 백 1백98만원 모두 **자함시**.

왼쪽부터 (강연) 디스토티드 자이언트 다이에 크루넥 1백90만원, 옐로 컬러 셔츠 1백19만원, 블루 컬러 부츠 컷 팬츠 1백19만원, 블랙 컬러 LV 올리 스니커즈 1백30만원 모두 **루이 비통**. (지함) 디스토티드 모노그램 앤드 다이에 허브 집업 니트 2백22만원, 그린 컬러 셔츠 가격 미정, 화이트 컬러 부츠 컷 팬츠 가격 미정, 옐로 컬러 LV 올리 스니커즈 1백30만원 모두 **루이 비통**. (순차) 멀티컬러 체크 카 코트 5백22만원, 화이트 컬러 셔츠 가격 미정, 멀티컬러 체크 팬츠 가격 미정 모두 **루이 비통**.



왼쪽부터 (강연) 베이지 컬러 재킷 3백40만원, 셔츠 86만원, 브라운 컬러 팬츠 1백92만원, 타이 36만원 모두 **구찌**, (지섭) 니트 카디건 1백79만원, 레드 컬러 니트 1백79만원, 체크 팬츠 1백73만원, 로퍼 1백13만원 모두 **구찌**, (송찬) 체크 재킷 2백63만원, 아가일 니트 베스트 1백25만원, 블루 컬러 체크 셔츠 86만원, 옐로 컬러 팬츠 1백37만원 모두 **구찌**.



왼쪽부터 (지섭) 샌드드 더블 코튼 소재 재킷 2백73만원, 샌드드 더블 코튼 소재의 팬츠 1백59만원, 비크 벨트 백 가격 미정 모두 **보테가 베네타**, (강연) 부클레 소재의 재킷 4백72만원, 블루 컬러 울로 셔츠 가격 미정, 부클레 소재의 팬츠 2백22만원, 부클레 소재의 로퍼 1백31만원 모두 **보테가 베네타**, (송찬) 코튼 트릴 소재의 셔츠 1백42만원, 라넌 소재 팬츠 가격 미정, 테크 니트 소재의 슬리퍼 81만원, 비크 벨트 백 2백47만원 모두 **보테가 베네타**.



왼쪽부터 (순천) 플라워 프린트 셔츠 1백66만원 **다울 맨**, 파플 컬러 피자마 팬츠 1백만원 **톰 포드**, (자선) 플라워 프린트 셔츠 가격 미정 **다울 맨**, 핑크 컬러 트레이닝 팬츠 가격 미정 **톰 포드**, (강연) 플라워 프린트 셔츠 90만원, 블루 컬러 피자마 팬츠 1백만원 모두 **톰 포드**.



왼쪽부터 (강연) 스트라이프 니트 톱 1백60만원, 화이트 컬러 코튼 쇼츠 63만원, 레이스업 슈즈 92만원 모두 **일렉신더 맥퀸**, (자선) 화이트 컬러 재킷 가격 미정, 화이트 컬러 셔츠 가격 미정, 화이트 컬러 팬츠 가격 미정, 레이스업 슈즈 92만원 모두 **일렉신더 맥퀸**, (순천) 네이비 컬러 프린트 셔츠 1백53만원, 블랙 컬러 코튼 쇼츠 63만원, 구두 가격 미정, 레더 소재의 하네스 1백94만원 모두 **일렉신더 맥퀸**.



왼쪽부터 (자신) 레드 컬러 재킷 2백만원대, 니트 톱 80만원대, 쇼츠 70만원대, 브라운 컬러 슈츠 1백만원대 모두 **밴디**. (송진) 화이트 니트 카디건 2백만원대, 자수 장식 셔츠 1백만원대, 화이트 컬러 팬츠 90만원대, 브라운 컬러 패브릭 스니커즈 90만원대 모두 **밴디**. (강민) 블루 컬러 재킷 2백만원대, 화이트 셔츠 가격 미정, 블루 컬러 팬츠 90만원대, 베이지 컬러 우븐 러피어 소재의 슬라이드 1백만원대 모두 **밴디**.



왼쪽부터 (송찬) 레이어드 박시 핏 셔츠, 스윙 칼라 장식 집업 셔츠, 그레이 컬러 팬츠, 레더 스트랩 샌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강민) 그레이 후드 셔츠, 칼라리스 박시 핏 셔츠, 그레이 팬츠, 레더 스트랩 샌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자신) 그레이 레더 재킷, 칼라리스 박시 핏 셔츠, 그레이 팬츠, 레더 스트랩 샌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김도현**
모델 **김강민, 임지섭, 이승한**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에르메스 02-542-6622
루이 비통 02-3432-1854
구찌 02-3452-1921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밴디 02-514-0652
지형시 02-546-2790
틀 포드 02-6905-3534
다음 맨 02-3480-0104

New Curve

자유로운 핑크 정신과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알렉산더 맥퀸의 뉴 백, 커브.



신축한 캐미컬과 과감한 V넥
클래지 라인에 돋보이는 피스트 미디
드레스 3백75만원, 옐로 컬러 커브 백
1백89만원 모두 알렉산더 맥퀸.

● sponsored by Alexander McQueen

포토그래피 박재홍(세움)



알렉산더 맥퀸이 선보이는 클래식은 고루하지 않다.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과 독창적인 아름다움,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한 재단, 그리고 허우스가 전하는 자유로운 핑크 정신은 강렬한 감정을 이끌어낸다.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개성이 존중받아,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를 받는 듯한 느낌이랄까. 새롭게 선보이는 커브 백 역시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는 이에게 표하는 경의다. 클래식한 호보 스타일 백에 아이코닉한 X 자 하네스 디테일로 변주를 주었고, 하네스 기장자리는 모두 수작업으로 마무리해 장인 정신을 담았다. 텐 컬러 외에 라임, 코랄, 옐로, 티 로즈, 블랙, 데님 색상으로 선보인다. 사이즈 역시 가로세로 19X23cm의 이상적인 사이즈로 구현했다. 포인트는 가방의 플랩이다. 자석으로 여닫는 윗면의 이중 덮개는 온전한 타원 형태를 이뤄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1백89만원. 문의 02-6905-3472 에디터 **이주이**



까르띠에 칼린드 드 까르띠에 나노 백
 까르띠에 매종의 가장 아이코닉한 오브제인 레드 박스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달칵 가능한 스트랩을 장착해 클러치와 크로스 백으로 활용 가능해 실용적이고 캐주얼하다. 소재는 송이자기죽이다. 1백50만원대.

18K 옐로 골드 에 오닉스와 차보라이트를 세팅한 팬더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9백60만원대,
 18K 옐로 골드 에 차보라이트와 가시, 오닉스로 눈과 코를 표현한 팬더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2천4백만원대,
 18K 옐로 골드 에 차보라이트 가시, 오닉스, 블랙 레커,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골드 비즈 수슬을 입에 단단히
 들고 있는 팬더를 형상화한 팬더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3천1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문의 1566-7277

높은 습도와 온도로 끈적해지는 여름에 제각각 천연 라피아 소재에 닐로티쿠스 오베코 악어가죽을
 매치했다. 나무 장안이 직접 짚어 염색을 하거나 화학처리를 받지 않고 오로지 구부리기만 해서 만든
 지네스트라 우드 핸들, 손으로 한 알 한 알 수놓은 자연스러운 로고 및 맛스러운 라피아 디오네
 소프트 우드 핸들 백 29X21X12cm, 9백80만원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면 혼방 천연 라피아 소재에 콜롬보의 로프 디테일을 가미했다.
 광택을 살린 말레-짐 악어가죽 핸들을 매칭해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살린
 디자인이 특징. 오렌지, 블루 컬러도 선보인다. 0플라아 아틸미 해변으로의 여행을
 콘셉트로 한 M 사이즈 라피아 트트백 29.5X23X16cm, 3백18만원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the dazzler

주얼리 매종에서 만드는 백에는
 남다른 미학이 있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la bella vacanza

지중해로 떠나는 설렘을 천연 라피아와 최상의 악어가죽으로 표현한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의 바캉스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불가리 세르펜티 포에버 미니 크로스 백
 주얼리의 반짝임을 백에 담았다. 진주와 같은 은은한
 광택을 지닌 밀키 오팔 베이지 컬러의 갈루사스킨 소재와
 화이트 아게이트 컬러의 카트 레드 소재로 이루어진 견고한
 외부 프레임이 돋보인다. 백 안쪽은 블랙 컬러의 나파
 레더로 마감했으며 블랙 오닉스로 장식한 눈과 화이트
 아게이트 컬러의 에-클레로 완성한 라이트 골드 도금 황동 벨
 마리 잠금장치가 카리스마 있다. 3백10만원대.

18K 로즈 골드 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세르펜티
 바이퍼 2 코일 브레이슬릿 M 사이즈 5천4백만원대,
 로즈 골드 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세르펜티 링 9백만원대,
 세르펜티 바이퍼 네크리스 2천4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문의 02-2056-0170 에디터 장라윤



휴대폰이나 카드 등을 수납하기 좋도록
 가볍고 실용적으로 디자인한 크로스 백.
 변형한 마린 스트라이프를 프린트한 코튼
 캔버스 소재에 악어가죽을 매치하고
 112cm의 소가죽 슬더 스트랩을
 매치했다. 캐주얼한 형태라 세컨드
 백으로 활용 가능하다. 마레 스트라이프
 유크로스 백 20X23.5cm, 1백78만원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천연 라피아를 울리, 레이온 혼방 레이스에 수놓듯 직조해 만든
 원단을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다. 핸들과 사이트, 플랩에 닐로티쿠스
 오베코 악어가죽을 매치했고, 핸드 자수로 로고를 새겼다. 레트로 무드를
 반영한 오버사이즈 라피아 카리테스 백 39.5X32X21cm, 1천3백80만원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문의 02-2230-1225 에디터 장라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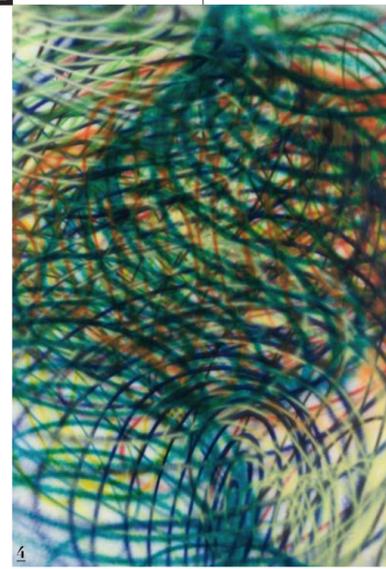
● sponsored by COLOMBO VIA DELLA SPIGA

about a case

활동적인 비즈니스맨을 위한 어번 리더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 고풍한 시야로 즐기는 그레이드 미아스타쉬 스포츠 그레이드 클래식 80만원대 **몽블랑**, 문의 02-1670-4810, 베나치카브 스킨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시그니처 캔버스 클러치 9만1천원 **벨루티**, 문의 02-547-1886, 클래식 블랙 카프 소킨 T 라운드 스탠드 49만1천원 **토즈**, 문의 02-3438-6008, 울, 실크, 캐시미어 소재를 조합해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는 안티고나 스포츠 플랫 울 백 1백 57만원 **지팡이**, 문의 02-546-2790, 케이스 지름 42mm 크기의 룬진 스피릿 크로노그래프 워치 4백99만원 **루진**, 문의 02-310-1587, 마이스타쉬 스포츠 그레이드 키 홀더 20만원대 **몽블랑**, 문의 02-1670-4810, 컬러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펠라테스타 플랫 지퍼 파우치 1백99만원 **에르메네제르도 지제**, 문의 02-518-0285, 상징적인 인크레디블 7 방법으로 제작한 니퍼 가죽 BV 클래식 4백72만원 **보타가 베나치**, 문의 02-3438-7882, 체인 자카드 타이 가터 미팅 **지팡이**, 문의 02-546-2790, 블랙 컬러 갤럭시Z 폴드 2 2백39만9천원 **삼성전자**, 문의 02-2265-0114, 단정한 외관을 자랑하는 영스타족 블라인즈 로퍼 가터 미팅 **에르메스**, 문의 02-542-8622 **에디터 미주이**



서울에서 즐기는 독일 아트

독일의 문화와 예술에 뿌리를 둔 MCM의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MCM 하우스에서 4월 3일부터 한 달간 피닉 갤러리 대표 작가 30명을 포함해 주목할 만한 신인 작가들의 전시를 오픈한다.



음악, 예술, 여행, 기술 등 네 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독일의 문화와 전통을 패션 디자인에 접목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MCM은 1976년 독일에서 탄생했다. 도전적이고 자유로운 한편 매우 철저하고 정직한 독일 특유의 감성을 담아 토비아스 레베르거(Tobias Rehberger), 크레이그 앤드 칼(Craig & Karl), 크레이그 레드먼(Craig Redman), 에디 강(Eddie Kang)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 규제와 경계를 벗어난 도전과 협업을 해나가며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고 있는 MCM. 그동안 문화 예술 체험 캠페인인 쿤스트 프로젝트(Kunst Project)를 통해 타투, 토이 아트, 조형예술, 사진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소개하고 패션과 예술의 접점을 모색해온 MCM이 이번에는 독일 아트 갤러리 피닉과 손잡고 피닉 서울(König Seoul)을 개관한다. 2002년 설립된 피닉은 현대미술의 중심인 베를린에서 영향력이 큰 갤러리 중 하나로 꼽힌다. 갤러리는 옛 가톨릭교회 건물에 위치하는데, 1960년대의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가 아니라 20m의 높은 층고와 노출 콘크리트 벽으로 이루어져 남다른 감성을 자랑한다. 초창기부터 용·복

합적 또는 개념적 접근을 다루는 작가들에게 집중해온 피닉은 독일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대미술을 선도하며 성장했고, 현재 40명에 이르는 작가가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피닉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기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2020년 말까지 도쿄의 MCM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펼쳐진 피닉 도쿄(König Tokyo)에 이어 올해는 서울 청담동 MCM 하우스에서 피닉 서울을 만날 수 있다. 이를 통해 갤러리를 대표하는 카타리나 그로세(Katharina Grosse), 노르베르트 비스키(Norbert Bisky), 프리드리히 쿠나트(Friedrich Kunath) 등 30명의 작품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요린테 보이르트(Jorinde Voigt), 예페 하인(Jeppe Hein), 카미유 앙로(Camille Henrot), 클라우디아 콤테(Claudia Comte)와 신진 작가들의 전시를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 MCM 하우스는 문화를 나누고 다양한 예술가와 협업하는 아이코닉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독일에 뿌리를 두고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MCM과 피닉의 행보가 기대된다. 문의 02-540-1404 **에디터 장미윤**

1 캐서린 앤드루스(Kathryn Andrews), 'Tutti Frutti Ancient(Downy of Hera)', 2019.
2 노르베르트 비스키(Norbert Bisky), 'Apokypf', 2020.
3 에르빈 부름(Erwin Wurm) 'Avatar Reclining', 2020.
4 카타리나 그로세(Katharina Grosse) 'o.T.', 2007.
5 알리시아 크와데(Alicja Kwade) 'Selbstporträt als Geist', 2020.
6 피닉 서울전이 열리는 서울 청담동 MCM 하우스.



여타 단백질 보충제와 달리 하이문은 균형 잡힌 영양 설계로 적절한 단백질 섭취뿐 아니라 체계적인 영양 관리 솔루션도 함께 제시한다. 먼저, 근육과 함께 뼈 건강을 위한 영양도 강화했다.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한 칼슘과 인,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의 이상적 비율인 2:1로 배합했다. 여기에 칼슘과 인 흡수에 필요한 비타민 D,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한 비타민 B6를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맞게 균형 있게 담았고, 세포분열 활성화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위한 아연을 추가했다. 단백질 대사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판토텐산도 함유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인 콜라겐(피부, 연골, 결합조직 생성에 중요)과 류신도 담고 있다. 유산균의 먹이로 장내 유익균 증식

과 유해균 억제 기능을 갖춘 프리바이오틱스인 프락토올리고당으로 장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것도 하이문만의 장점이다. 유당 역시 자사 우유 대비 1/5 수준으로 낮춰 우유를 잘 먹지 못하는 사람도 섭취 가능하다. 일동 후디스만의 기술력이 담긴 FB(Fluid Bed) 파립 공법으로 물에도 잘 녹는 프로틴 밸런스 물이나 두유 등에 타서 섭취하면 훌륭한 영양 간식이 된다. 그릭 요거트에 섞어 건과류나 블루베리를 올려 먹으면 훌륭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손색이 없다. 게다가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으로 인식되는, 유대교 율법에 의해 식재료와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음식임을 인증하는 코셔 마크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해 할랄 인증을 받은 단백질 원료를 사용했다. 캔(티) 포장은 플라스틱이나 유리, 종이 등 여타 포장 용기에 비해 산소 등의 기체와 수분, 그리고 광원 차단성이 우수해 식품을 안전하게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 열로 인한 영양 손실을 줄여주는 '드라이 블렌딩' 공법으로 영양 성분을 최소화했으며, 입자 하나 하나를 그레놀화하는 '그레놀 & FB 공법'으로 일관된 경도와 함량을 유지해 맛과 성분이 균일하다.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와 함께라면 영양 보충이 필요한 성장기 아이들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과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고 맛있게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유익함으로 꽉 차 있는 하이문과 함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해 보자. 문의 02-2049-2238 에디터 **이유이**

Stay Healthy

건강과 면역력 관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요즘, 면역력으로 직결되는 단백질 보충에 뼈 건강, 장 환경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일동 후디스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를 소개한다.

에디터는 1년 전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30대에 접어들며 급격하게 떨어진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꾸준한 운동에 몸은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듯하지만, 운동 후 쉽게 찾아오는 피로와 쉽게 증량되지 않는 근육량, 그리고 되레 줄어드는 체중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다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인 단백질, 규칙적인 운동과 고른 영양 섭취를 병행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인데, 왜 이 당연한 부분을 간과했을까? 닭 가슴살이나 소고기 등은 손질하고 조리해서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을 겪는 탓에 우유를 전혀 먹을 수 없다. 또 유독 먹고 바르는데 까다로운 에디터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제품도 찾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당에 대한 염려 없이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

는 단백질 보충제는 없을까? 단순히 단백질만 채워주는 보충식이 아니라 고른 영양 성분을 담아낸 것은 없을까? 유아식 설계에 50년 이상의 노하우를 지닌 일동 후디스가 제안하는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가 그 해답을 제시한다.

단백질은 수분 다음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다. 근육의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체내 에너지를 생성하고, 외부 침입에 맞서는 항체와 호르몬, 그리고 효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30대 이후부터 근육이 매년 약 1% 사라진다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근 손실 속도가 빨라지며, 이에 따라 면역력이나 체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 손실은 막아주고 노화 현상은 예방할 수 있다. 또 단백질은 면역력과 관련 있는 항체 생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그러므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체내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 체계

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에너지 공급원이 부족해져 쉽게 피로감이 찾아온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우리 몸이 면역 체계를 정비하면서 회복을 위한 집중을 시작한다. 또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체내 소화 시간이 다르기에 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하이문의 장점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에 많은 단백질 영양제가 나와 있지만, 다섯 가지 단백질을 한 번에 담은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하이문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6:4 비율로 구성했다. 분리유단백,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농축유청단백, 우유 단백질을 눌러 담은 농축유단백, 그리고 식물성 분리대두단백과 프리미엄 산양유 단백질을 이상적으로 배합해 다섯 가지 단백질의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이문 1잔에는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는데, 이 양은 건강기능식품 1일 섭취량 기준의 168%를 충족하는 양이다.

● sponsored by ILDONG FOODS



sweet spring

잠시라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순간에 민망해지지 않도록, 밝고
행복한 발색은 물론이고 촉촉한 입술
케어까지 가능한 스프링 립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우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에르메스 루즈 에르메스 매트 #33 오랑주 브외트** 제2의 피부처럼 편안하고 촉촉한 매트 립스틱, 파우더리한 피니시가 강렬하고 지속적인 컬러 유지를 도와준다. 3.5g 8만8천원. 문의 02-310-5174

구찌 루즈 아레브르 브왈 #301 매코발 할리우드 스타들의 추억과 같은 코발 컬러를 재현했다. 가벼운 포물리가 촉촉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뛰어난 반짝임으로 미루라준다. 3.5g 4만8천원. 문의 080-850-0708

이르마니 루즈마드 #405 솔탄데드 시신을 인도하는 강렬한 레드 컬러를 구현했다. 입술에 얇게 밀착되어 물이 날아 적고 오랜 시간 지속되며 호호바 오일을 함유해 건조함도 덜다. 4g 4만7천원. 문의 080-022-3332

바이레도 바이레도X이시미아 프랑치 #209 시텐 디블스 보가에는 매트한 듯해도 입술에 비르면 적당한 유분감이 촉촉하게 올라온다. 발색력도 뛰어나다. 3g 6만7천원. 문의 02-3479-1688

샤넬 루즈 코코 #498 에클라 클래식한 진주의 광채에서 영감을 받아 촉촉하고 깔끔한 텍스처의 딥 핑크 컬러를 담았다. 3.5g 4만7천원. 문의 080-332-2700

랑콤 입술워 루즈 인티미드 #130 비주코발 미피라자드 발리는 부드러운 소프트 매트 텍스처가 붙어 제자이다. 모든 얼굴 톤에 잘 어울리는 컬러로 도톰하고 입체적인 입술을 완성해준다. 3.4g 4만4천원. 문의 080-022-3332

시슬리 로 워드 루즈 #27 로즈 불소이 파워풀한 핑크 컬러 필러로 생기 넘치는 촉촉 연술하고 싶을 때 적당하다. 예민하고 약한 입술에 영감과 보습 성분을 더해준다. 3.4g 6만원. 문의 080-549-0216

자형시 로 루즈 딥 벨벳 #35 루즈 이니피에 풍부한 피코엔트와 메티피인 피루다가 부드럽게 입술을 감싸며 한 번의 터치로도 강력한 발색이 가능하다. 12시간 지속되는 롱래스팅 효과는 덤. 3.4g 4만8천원. 문의 080-801-9500

클레르보 보메 루즈 아레브르 #17 로즈 워터 한미드로 표현하면 비드한 로즈 핑크 컬러. 덧칠로도 생생한 컬러를 유지해 생동감 있고 볼륨감 넘치는 입술로 연출해준다. 4g 9만5천원. 문의 080-564-7700

몰체 앤 기타나 샤이니시모 하이 시인 립 라커 #410 코발 리스트 탭클링한 코발리스트 광채와 포켓 발색이 매우 가벼운 사용감까지 갖췄다. 비티민 E를 함유해 탁월한 립 케어 효과까지 발휘한다. 5ml 4만8천원. 문의 080-564-7700 에디터 **장미윤**



(우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틀리에 코몽 레몬 아일렌드** 해변에서 맞닿아 따뜻한 아침을 향으로 표현했다. 특 특질 듯한 싱그러운 레몬을 중심으로 아우라진 재스민 향기가 깨끗하고 밝은 기운을 전한다. 여기에 바닐라를 조미료처럼 더해 한층 감미롭고 부드러운 진함을 느낄 수 있다. 100ml 19만2천원. 문의 02-3479-1870 **쇼파드 마엘 다리비**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 정원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성을 담은 편안한 향. 강렬한 핑크 페퍼 향이 우아한 파슬리와 대조를 이루며 흥미로운 향을 선사하는데, 아자르는 하니 앵굴루타가 강렬한 어우러져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쇼파드의 세심하고 정교한 디아몬드 카펫을 모티브로 한 매혹적인 보틀에 담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완성했다. 50ml 25만원. 문의 080-990-8989 **마크 제임스 데이시 스프링 오드 투윙렛** 불꽃의 순수한 기운을 전한다. 테지과 핑크 장미, 로즈우드로 이루어진 신선한 플로럴 향조에 그린 카리망이 향에 한층 생기를 더하고, 스페이시한 텍스처가 깨끗하고 깔끔한 진함을 남긴다. 보가인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꽃병오리 장식 그린 보틀에 담았다. 50ml 9만2천원. 문의 02-3452-1921 **매종 프란시스 카팅 아라 로즈** 아틀에서 연상할 수 있듯 장미가 메인으로 활짝 섰을 때 상쾌하고 사랑스러운 향을 이룬다. 장미의 연하고 보드라운 꽃잎만 담았기에 투명하고 맑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아자르는 바이올렛과 샌들우드, 마스코의 조합이 향을 한층 풍성하게 만든다. 35ml 16만7천원. 문의 02-6905-3769 **담타크 오로페오 오드 퍼플** 세련된 글라이드 흐르고, 은은한 조망이 비치는 자유롭고 감각적인 분위기가 파리 생제르맹 나이트 바 오로페오를 향으로 표현했다. 시더우드와 톱카 빈으로 전개되는 우디 향조에 베베르, 파슬리를 더해 사뭇한 비브를 연출하고, 앙골루라와 다마스크 장미, 재스민을 더한 우아한 플로럴 향조가 아자르다 아자르에 가미된 마스크와 엠바가 생수같은 여운을 남긴다. 75ml 22만원. 문의 02-3479-6049 **에어린 매디테리안 언허 니시** 립 인클로젼 햇살이 가득한 지중해 해변에서 피아는 생동감 넘치는 달콤한 꽃에서 영감을 받았다. 베르가모트와 톱카 푸는 자몽이 아우라진 상쾌한 시트러스 향이 투베르조와 만나 한층 생기 넘치며, 아자르는 달콤한 꿀과 우아한 재스민의 조합이 은은한 진함을 남기기엔 좋은 아로이 오채드롭다. 50ml 15만2천원. 문의 02-6971-3212 에디터 **이주이**

spring in the air

코끝을 자극하는 싱그러운 봄 향기.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editor's Pick

봄철 피부 고민을 해결해줄 스마트 뷰티템 13.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상하이 푸처 스킨 쿠션** 브랜드의 시그처처 바이오리프팅 세럼의 핵심 성분을 담아 스카이어 효과도 독특히 누릴 수 있는 비건 쿠션. 가벼운 워터 베이스 제형에 자연스러운 커버력도 만족스럽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셀트리온 아토피를 지원에 기부한다고. 내 피부에도, 동물 보호에도 착한 아이템. 12g 15만8천원. 문의 070-4370-7511_by 에디터 이주이

에르메스 루즈 에르메스 새틴 립스틱 코랄 아쿠아 52 리미티드 에디션 강렬하고 선명한 컬러가 입술에 그대로 일체 피부 문에 구애받지 않는 감성인 레드 컬러가 낭만적인 이 계절에 잘 어울린다. 로즈 트림에서 만나 넓게 펼쳐진 디자인과 신비로운 광택에서 영감을 얻은 파자지는 소장 욕구를 높인다. 케어하는 리필이 가능해 환경보호에도 알맞다. 3.5g 9만8천원. 문의 02-310-5174_by 에디터 이주이

바비브 9000 코르디나 스트레이티너 무선이자 자유롭고 정교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짧은 예열 시간에 많은 양의 모발도 효과적으로 케어해주어 특히 비싼 아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무빙 타입의 올트라 스무스 세라핀 플라티네 타입 사용감이 부드럽다. 3인칭 충전으로 최대 38분간 사용할 수 있고, 가벼운 하드 케이스에 담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39만9천원. 문의 1899-0209_by 에디터 이주이

자이스 트 루즈 밤 호호바 추출물, 타히티 블랙 진주, 아르멜라 플라워 등 오직 자연 유래 성분만 담았다. 가벼운 바 제형이 부드럽게 녹아들어 입술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제품 본연의 기능성도 만족스럽지만 시크한 화이트 레더 케이스에 자꾸만 손이 간다. 3.2g 4만8천원. 문의 080-801-9500_by 에디터 이주이

니콜라이 앙젤리스 페어 프랑스 니치 향수인 니콜라이에서 출시한 봄 향기를 담은 향수. 상큼한 베르가모트, 생기 있는 블랙 카렌트, 선명한 재스민 부케와 로즈, 그리고 파슬리 에센스와 마스코 등이 어우러져 신선하고 풍성한 봄의 정열을 표현했다. 알코올이 포함된 4월 어느 날 아침, 에디터의 가방을 다스린다는 여행준비용 같은 달콤한 향이다. 100ml 19만8천원. 문의 080-547-7000_by 에디터 정미연

나스 퓨어 래디언트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SPF 30 PA+++ 마스크 쓰는 날이 많아지면서 뷰티 제품을 고를 때 윤아-치 않는 제품에만 손이 간다. 그런 면에서 합격자인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어 스카이어 후 간편하게 덧바르면 끝. 11가지 세어로 출시했는데, 피부 문이 살짝 붉은 에디터는 베이비 페이스 감도는 발은 노르차가 잘 맞는다. 50ml 6만3천원. 문의 02-6905-3747_by 에디터 정미연

눅스 베리로즈 래디언스 필링 에센스 각질 관리에 초공인 스킨케어도 트러블이 올라 오기 앞둔 시점에서 에디터의 지성 피부. 이 제품은 매달릴 사용해도 자극 없이 피부와 각질을 순하게 정돈해준다. 약산성 베이스의 정미수가 피부에 친화적 보습 효과도 부여한다. 모공을 막지 않는 노코메드제너 테스트를 통과해 더 안심하고 사용하는 중이다. 150ml 3만8천원. 문의 080-400-0852_by 에디터 이주이

살론 인피니티 가벼운 연도 후 모근에 갈바리 에-자를 싸주면 모근 형성이 억제되는 시스템. 2주에 한 번씩 2개월 동안 사용한 결과, 지름 다치게 자라다가 어느새 깨끗한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감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얼굴에도 사용할 수 있다. 살론 작용하는 블루 라이트 기능을 갖춘 클렌징 박스를 함께 제공해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46만원. 문의 080-246-1234_by 에디터 이주이

세이도 클리어 샴페어 스틱 SPF 50+/PA+++ 메이크업한 얼굴에 덧칠해도 맞지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된다. 물이나 땀, 열기, 초미세 먼지에도 끈적임이 자외선 차단력을 향상해 피부문 보호해준다. 식물 유래 성분으로 자외선 차단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준다. 순호초에 유래한 자외선 차단 성분을 알코올이 없는 점과 생분해성 포장재를 사용해 환경까지 생각하는 자연 친화적 제품이다. 20g 3만3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이주이

스니스 퍼펙션 셀룰라 퍼펙트 리프트 크림 에디터는 제품을 바른 후 살짝 땅기는 미묘한 느낌을 좋아한다. 이 크림은 광채와 부드러움 피맛감을 부여하는 집중 케어 영안 크림인데, 바로고 나면 알레르기 모르게 빨라 아기가 땅기는 것이 마치 리프트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간단한 생분해성 자외선 차단 성분을 담아 효능도 뛰어났다. 50ml 7만8천원. 문의 051-745-1202_by 에디터 정미연

시슬러 디 크림 230 시슬러는 매일 정해진 헤어를 순간 건조시키는 헤어드라이어의 열이 모발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구하도록 하는 기적 같은 헤어 크림을 선보였다. 아침 샤워 후 젖은 머리카락에 바르고 열을 가했거나 마터 트리트먼트를 한 후 머리카락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케어와도 모발이 오일을 함유해 모발을 건강하게 해준다. 쉐링 이온이나 스트레이티너 등 열 헤어 스타일링 기기를 사용하기 전 필수 제품이다. 150ml 11만원. 문의 080-549-0216_by 에디터 정미연

연직 화이트 래디언스 선 프로텍션 SPF 50+ PA+++ 자외선 차단제 특유의 꾸덕하고 텁텁한 느낌, 그리고 유분기 가득한 무거운 발림력 에디터는 SPF 수치가 낮아도 되고 가벼운 제품을 선호하는 편. 이 제품은 촉촉한 발림성과 보습보존 한 마무리감이 마음에 드는데, 가벼운 물감과 마백, 주름 개선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감동이다. 스카이어 루틴에 추가해도 부담스럽지 않을 듯. 30ml 5만2천원. 문의 1644-4490_by 에디터 정미연

동인비 2세대 자성 원자 에센스 연신원 프라보이오닉스의 홍삼 유출 성분과 6년근 홍삼으로 배양한 프라보이오닉스 1백억 개를 최적인 비율로 조합한 성분. RG 진제 노 바이오인 핵심 성분. 적당히 끈적이는 쉐인 제형과 은은하게 퍼지는 홍삼 향 덕분에 더 선호가 된다. 딱 7분만 사용해도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고, 탄력을 연하게 한다고. 간성인 에디터가 아침저녁으로 발랐더니 무엇보다 피부가 쫄쫄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 60ml 12만원. 문의 080-710-2304_by 에디터 정미연



SHOWROOM

BEAUTY



샤넬 투 오브 하트 링 연인들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 하트 모티프 플래티넘 빈지 컬렉션을 출시했다. 밴드를 총총히 휘감은 하트 세팅이 다이아몬드를 감싸는 빈지와 겹받침으로 구성했다. 이번 컬렉션의 바탕이 되는 플래티넘은 디자인과 소재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하드니스 플래티넘으로 강도와 강도가 우수하다. 문의 1588-6576

블라기 세르펜티 바이퍼 컬렉션 매혹의 상징인 뱀에 가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컬렉션.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세르펜티 바이퍼는 보다 모던하고 시크한 스타일로 재해석되어 강렬하면서도 트렌디하다. 그중 링은 2코일로 진화해 블라기의 대담한 감성을 표현한다. 문의 02-2056-0170

에거 르골트 리베르스 클래식 스물 듀에트 하나의 무브먼트가 2개의 다이얼을 구동한다. 다이얼 앞면은 1930년대 아르데코 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리베르스의 간결하고 순수한 라인이 돋보이고, 케이스를 돌리면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또 하나의 다이얼이 드러난다. 문의 02-6905-3998

브레게 클래식 투르비옹 엑스트라 플랫 오토매틱 5367PT 전통적인 그랑 피 기법을 사용해 깊은 블루

구찌 키 X 구찌 양생커터 카이에게서 영감을 받아 키 X 구찌 컬렉션을 공개했다. 키가 가장 좋아하는 테디베어를 모티브로 의류와 액세서리를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곧 끝은 상상력을 펼치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팝 아티스트 앙드레와 베어 벌로 아 트윅도 선보인다. 갤러리아 명품관, 한남동 현대카드 무직 라이브러리 등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52-1921

로로피아나 세시아 백 이탈리아의 한 골짜기와 그곳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에서 이름을 따온 세시아. 완만한 곡선이 매력적인 이 골짜기의 세션한 라인과 유연한 구조, 편안한 텍스처를 백 디자인에 적용했다.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해 오피스 룩부터 러저 룩까지 어떤 스타일에도 편안하게 매치할 수 있다. 문의 02-546-0615

일렉산더 맥퀸 키트 백 백을 강렬하고 현대적인 감성으로 해석한 키트 백을 출시한다. 가장자리는 모두 수직선으로 마감했고, 솔더 스트랩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2021/S/S 컬러는 티로즈, 라임, 코랄, 옐로 등이다. 문의 02-6905-3472

폼 스튜디오 라뉴얼 오븐 한성사의 뉴 럭셔리 편집숍 폼 스튜디오가 현대미화점 대구점에 4월 6일 새롭게 오픈했다. 이번 매장은 갤러리의 작품을 보듯 아트 컬렉터의 방식을 묘사했는데, 우아하고 세련된 유라피언 감성이 담긴 다양한 디자이너 상품들과 특색 있는 주얼리가 어우러져 컬렉터의 재미를 선사하고 더욱 기쁨 있는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문의 02-3449-5359

폼 스튜디오 라뉴얼 오븐 한성사의 뉴 럭셔리 편집숍 폼 스튜디오가 현대미화점 대구점에 4월 6일 새롭게 오픈했다. 문의 080-549-0216



JEWEL & WATCH

에거 르골트 리베르스 클래식 스물 듀에트 하나의 무브먼트가 2개의 다이얼을 구동한다. 다이얼 앞면은 1930년대 아르데코 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리베르스의 간결하고 순수한 라인이 돋보이고, 케이스를 돌리면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또 하나의 다이얼이 드러난다. 문의 02-6905-3998

블라기 세르펜티 바이퍼 컬렉션 매혹의 상징인 뱀에 가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컬렉션.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세르펜티 바이퍼는 보다 모던하고 시크한 스타일로 재해석되어 강렬하면서도 트렌디하다. 그중 링은 2코일로 진화해 블라기의 대담한 감성을 표현한다. 문의 02-2056-0170

에거 르골트 리베르스 클래식 스물 듀에트 하나의 무브먼트가 2개의 다이얼을 구동한다. 다이얼 앞면은 1930년대 아르데코 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리베르스의 간결하고 순수한 라인이 돋보이고, 케이스를 돌리면 다이아몬드

에르메스 슬림 테르메스 파페추얼 캘린더 이 컬렉션을 위해 필립 아멜로리가 특별히 디자인한 숫자 폰트는 간결하면서도 우아해 시계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래픽 요소가 더해진 다이얼은 로즈 골드와 티타늄 또는 플래티넘과 티타늄의 케이스 조합에 완벽히 녹아들었다. 문의 02-542-6622



FASHION



구찌 키 X 구찌 양생커터 카이에게서 영감을 받아 키 X 구찌 컬렉션을 공개했다. 키가 가장 좋아하는 테디베어를 모티브로 의류와 액세서리를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곧 끝은 상상력을 펼치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팝 아티스트 앙드레와 베어 벌로 아 트윅도 선보인다. 갤러리아 명품관, 한남동 현대카드 무직 라이브러리 등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52-1921

로로피아나 세시아 백 이탈리아의 한 골짜기와 그곳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에서 이름을 따온 세시아. 완만한 곡선이 매력적인 이 골짜기의 세션한 라인과 유연한 구조, 편안한 텍스처를 백 디자인에 적용했다.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해 오피스 룩부터 러저 룩까지 어떤 스타일에도 편안하게 매치할 수 있다. 문의 02-546-0615

일렉산더 맥퀸 키트 백 백을 강렬하고 현대적인 감성으로 해석한 키트 백을 출시한다. 가장자리는 모두 수직선으로 마감했고, 솔더 스트랩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2021/S/S 컬러는 티로즈, 라임, 코랄, 옐로 등이다. 문의 02-6905-3472

폼 스튜디오 라뉴얼 오븐 한성사의 뉴 럭셔리 편집숍 폼 스튜디오가 현대미화점 대구점에 4월 6일 새롭게 오픈했다. 문의 080-549-0216



폼 스튜디오 라뉴얼 오븐 한성사의 뉴 럭셔리 편집숍 폼 스튜디오가 현대미화점 대구점에 4월 6일 새롭게 오픈했다. 문의 080-549-0216

폼 스튜디오 라뉴얼 오븐 한성사의 뉴 럭셔리 편집숍 폼 스튜디오가 현대미화점 대구점에 4월 6일 새롭게 오픈했다. 문의 080-549-0216

폼 스튜디오 라뉴얼 오븐 한성사의 뉴 럭셔리 편집숍 폼 스튜디오가 현대미화점 대구점에 4월 6일 새롭게 오픈했다. 문의 080-549-0216

폼 스튜디오 라뉴얼 오븐 한성사의 뉴 럭셔리 편집숍 폼 스튜디오가 현대미화점 대구점에 4월 6일 새롭게 오픈했다. 문의 080-549-0216



폼 스튜디오 라뉴얼 오븐 한성사의 뉴 럭셔리 편집숍 폼 스튜디오가 현대미화점 대구점에 4월 6일 새롭게 오픈했다. 문의 080-549-0216

폼 스튜디오 라뉴얼 오븐 한성사의 뉴 럭셔리 편집숍 폼 스튜디오가 현대미화점 대구점에 4월 6일 새롭게 오픈했다. 문의 080-549-0216

폼 스튜디오 라뉴얼 오븐 한성사의 뉴 럭셔리 편집숍 폼 스튜디오가 현대미화점 대구점에 4월 6일 새롭게 오픈했다. 문의 080-549-0216

폼 스튜디오 라뉴얼 오븐 한성사의 뉴 럭셔리 편집숍 폼 스튜디오가 현대미화점 대구점에 4월 6일 새롭게 오픈했다. 문의 080-549-0216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200-2700 *WHITE GOLD WITH A THIN LAYER OF RHOUDIUM PLATING FOR COLOR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AND EARRINGS IN 18K BEIGE GOLD, 18K WHITE GOLD* AND DIAMONDS.

CHANEL

FINE JEWELRY